

목포시,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성과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 확대 청년 125명 중소기업 배치 근무 온·오프라인 직업훈련 구인·구직 연계서비스 활발

목포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확대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일자리 환경 변화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남형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과 수산물품 언택트 일자리 사업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청년 125명이 중소기업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으며, 시는 사업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해당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청년특화 조성·선박·해양플랜트 정비 전문가 양성 사업, 청년마을로 프로젝트, 맞춤형 청년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 청년 자활 지원, 새일 여성 인턴사업 등 총 9개 직접 일자리 사업(55억6100만원)을 추진하면서도 일자리 284개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5개 단기 일자리 사업(12억7000만원)도 병행 추진 중이다. 전문가를 활용한 시민 복지서비스인 생활체육 청년체육지도자 배치를 비롯해 시립도서관 야간 운영 인력 채용사업, 대학생 직장체험을 위한 동·하계 아르바이트 사업, 대학생 안전점검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공공근로사업에 저소득 청년 296명을 배치해 백신 접종센터 현장 지원과 방역,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동물보호 감시, 각종 환경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직을 원하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실직자 등

의 취업을 지역 내 기업에 알선하는 온·오프라인 구인·구직 연계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다. 목포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는 청년 및 시민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구인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인력센터는 청년여성 온라인 일자리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 단절과 결혼이민 여성의 직업훈련과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산단내 구인구직 서비스를 연중 제공하고 있다. 권용선 목포시 일자리정책과장은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디지털 산업 분야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전국전문대학교 LiFE 사업단 목포서 워크숍

2021년 전국전문대학교 LiFE(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 사업단 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14·15일 양일간 목포과학대학교에서 열렸다. <사진> 이번 워크숍은 협의회 사업 3년째를 맞아 처음 열리는 것으로 2년간의 사업 경과보고와 향후 사업 확대 방안, 2022학년도 운영과 대국민 공동홍보 방안, 공동학점 교류, K-MOOC 개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 전문대학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LiFE 사업 확대를 위한 설명회 개최, 성인학습자 교육과정 모뎀화를 위한 학습경로 다양화, 공개 강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이자리에서 이승훈 목포과학대학교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우리나라 대학의 위기에 성인학습자 중심의 LiFE 사업은 평생교육으로 나아가는 선진국형 교육으로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양성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iFE 사업은 전국전문대학교 중 7개 대학만이 참여하는 국가지원사업으로 목포과학대학교를 비롯한 5개 대학이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재능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교가 신규로 진입해 2년간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서 큰 인기...완도군 4차 수출

2025년까지 700t 규모 수출 협약

완도군에서 생산되는 '완도자연그대로미(米)'가 러시아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완도군은 최근 완도농협연합미곡처리장(RPC)에서 완도자연그대로미 러시아 4차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18t으로 부산항에서 선적돼 러시아 사할린주 쌀 시장과 블라디보스토크 마트 등에 유통된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지난 2018년 할랄 인증을 받아 말레이시아에 첫 수출됐으며 이후 미국과 러시아 등지에 수출되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GAP 인증을 받았다. 러시아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 사이에 '한국 최고 품질의 쌀'로 인정받으며 오는 2025년까지 700t(20억여원) 규모의 수출 협약이 체결됐다. 완도군은 밥맛은 물론, 생산성과 재배안정성이 뛰어난 '재정무' 신품종을 도입했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오염되지 않는 토양과 맑은 물, 미세랄이 풍부한 해풍 등 완도 천혜의 자연



완도군은 지난 15일 완도농협연합미곡처리장(RPC)에서 '완도자연그대로미' 러시아 4차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완도군 제공>

환경을 활용한 '자연그대로 농법'으로 생산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수출 길에 오르는 것은 품질과 안전성

등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며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써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영암 내동리 쌍무덤 국가 사적 추진 학술대회

영암군은 지난 16일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와 영암군 유역 마한 문화권 최고 수장층의 무덤이 확인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국가 사적 승격 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영암 한국트러스트가요센터에서 마한 문화권 내에서 영암의 위상과 가치를 재조명하는 전국 각지의 마한 사회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순발 충남대학교 교수(한국고고학회)의 특별강연과 이범기(전남문화재단연구소), 서현주(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남중(전북대학교), 허진아(전남대학교), 김승근(고대문화재단연구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주제 발표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100년 만에 금동관이 확인된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 마한 수장층의 대외 교류 양상과 영암군이 마한 문화권 내에서 가지는 위상과 그 활용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영암 내동리 쌍무덤의 가치 도출을 통해 사적 지정의 당위성을 도출하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됐다. 전통명 영암군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영암군 유역 마한 문화권 내에서 영암의 역사적 가치와 대표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가 사적 승격을 통해 영암 고대 문화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교두보로 삼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원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남악 김대중광장서 9월 14일부터 5일간 '정원 페스티벌'

전남도 공모사업 선정 작가·주민 등 참여자 모집

무안군이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9월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남악 김대중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고품격 작가정원과 주민참여 정원, 상가정원 등을 조성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하는 즐거운 정원문화를 전파하고 지역상가와 정원이 콜라보를 이루는 고품격 테마정원

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은 20일까지 작가와 주민 등 상가 정원에 참여할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사전설명회와 제작발표회를 거쳐 '무안(務安)한 컷(cut) 정원'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페스티벌은 주제에 맞는 생애주기별 포토존을 조성하는 예술정원과 주민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정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정원 페스티벌이 정원

문화를 전라남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정원 페스티벌 외에도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까지 공동체정원 3곳과 실외정원 1곳을 조성 완료했고 올해 실내정원 2곳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남야 모두누리 열린 숲, 화산백련지 수목원 조성 사업 등 다양한 공원 및 정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1004섬 신안상품권 출시... 10% 특별할인

신안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004섬 신안상품권(1004섬 신안카드)을 출시(사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발급을 시작한 1004섬 신안카드는 충전금액에 따라 사용가능한 체크카드 방식으로 한국조폐공사 앱 '지역상품권 chak'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내 농협을 방문해 발급 받을 수 있다. 군은 1004섬 신안카드 출시기념으로 개인당 월 50만원까지 10% 특별할인을 제공하며 소득공제 혜택도 30% 적용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섬 신안카드를 발급받아 신안에 오면 할인혜택도 받고 지역상품권도 살아



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